

생태환경 치유해법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의불교칼럼

영국의 로이더통신은 10월 20일 재활용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참여불교 사례를 현지취재 보도했다.

태국의 한 불교사원은 빈병을 활용해 화장장에서 화장실까지 모든 시설물을 환경 친화적 니르바나로 꾸준히 바꾸었다. 수도 방콕에서 북서부로 약 600km 떨어진 곳에 소재한 와트 파마하체디캐우 사원은 엄청난 수의 빈병들이 담장부터 폐곡하게 박혀 형형색색 반짝이는 매우 이채롭고 아름다운 가람이다. 태국어로 와트 칸구아드 즉, '백만 병의 절'이라는 별칭을 지닌 이 절은 1984년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버려진 병들을 하나둘 주워 모아 스님들의 수행도량을 만든 이후 태국불자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대량 수거된 빈병으로 불탑, 법당 등의 불사를 계속 중이다. 불교계출애 어긋나는 알코올성 음료를 담았던 온갖 빈병들이 이제는 사원을 장엄하는 재료로 요긴하게 쓰인다. 이 혁신적인 환경친화성 재활용운동을 이끌어온 주지 산카타보노 스님은 앞으로 더 많은 빈병으로 더욱 큰 불사를 펼칠 것이라 말했다. 불교는 초창기부터 모든 중생이 깃들여 사는 온누리를 아끼고 보살피는 생태계보존 및 환경 친화적 전통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불교팔리대학의 신

다칭 도반이 소개한 '초기불교의 재활용 실천에 관한 참조' 중 일부인용이다.

2500여 년 전 붓다세존 당시부터 불가에서는 자연과 물질적 개발 간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붓다는 모든 생명과 삼라만상은 서로 기대며 더불어 존재하는 상호 의존관계라 가르쳤다. 따라서 환경보존과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고결한 의무다. 여러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소리 없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과 심적 위안을 베푼다. 예컨대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를 흡수해 인체에 불가결한 산소로 정화해 되돌려주는 나무를 베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다. 붓다께서는 제자들에게 환경을 소중히 돌보라 이르셨던바, 실제로 비구는 나무의 목숨을 빼앗는 벌목(伐木)마저 금했다. 현대문명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지구환경과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서서히 황폐화해가는 생태환경에 대한 치유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머지않아 스스로 쓰러기터미에 파묻히는 카르마를 피할 수 없다. 환경문제가 있어 3대 주요관심사는 온존의 고갈,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소진, 생물학적 분해불능 오폐물의 급증이다. 오늘날 모든 불자가정에서 오폐물의 재활용을 실천한다면 매립장이 감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



연오염물질에서 발생한 가스로 대체연료 활용과 에너지절감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폐지는 신문지나 화장지, 포장지 등으로, 페플라스틱은 각종 용기 및 운반자재, 의류, 가구 등으로, 폐유리는 용기와 타일 등 건축 및 도로포장재, 유리섬유 등으로 재활용한다.

세존 당시 불자들의 철저한 재활용 태도를 바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제자 아난다와 우데나왕이 나는 대화다. 왕이 묻는다. "아난다 존자, 짐의 처첩들이 모아드린 500벌의 옷들을 어디에 쓰시려오?" 이에 아난다가 대답한다. "네, 누더기를 걸친 비구들에게 나눠주렵니다." 왕이 다시 묻는다. "하면 그들이 입었던 누

더기들은 어찌 하시려오?" "잡자리의 덮개로 쓰겠나이다." "그 덮개가 닳고 헤지면 어찌 하시려오?" "네, 그때는 바닥 깔개로 쓰겠나이다." "그 바닥 깔개가 닳고 헤지면 어찌 하시려오?" "그럼 문간에 퍼두고 밭에 묻은 흙을 터는 데 쓰렵니다." "그마저 닳게 되면 어찌 하시려오?" "먼지떨이로 쓰겠나이다." "그 또한 닳고 낡으면 어찌 하시려오?" "네, 조각조각 잘게 썰어 진흙과 함께 이겨서 바다를 바르겠나이다." 왕은 말을 마치고 떠나는 아난다에게 500벌의 옷을 더 내어줬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Reuters, Early Buddhist Reference To Recycling, the Cullavagga XI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런 긴즈버그 ①

"자유로운 표현 통해 자아해방"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대 미국 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근거로 활동하던 문인들 가운데 기존문화관 및 도덕적 가치에 반기를 든 이른바 '삐딱한 글쟁이' 일당이 있었다. 반체제적이며 반지성적 성향의 그들은 자유방랑의 자기표현을 통해 자아를 해방시키고자 했다. 흔히 '비트 세대'로 알려진 그들은 메카시즘으로 알려진 당대의 극우 반공이념에 냉소적이며 기독교적 흑백양분논리 역시 우려했다. 시인 앨런 긴즈버그, 그레고리 코르소, 로렌스 펠링게티 등과



앨런 긴즈버그

동안 내내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며 병치레를 하던 어머니, 게다가 가족 모두가 급진노동운동에 이래저래 연루됐다. 그들은 돈과 사회적 지위만 빼고는 죄다 갖춘 셈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온갖 몽환과 이상 사이를 떠돌며 남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자존심과 오기만 골고루 갖춰버린 전형적인 도시빈민 지식층이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던 가정환경은 어린 앨런을 일찌감치 애늬이로 만들어 놓기에 충

소설가 잭 케루악 등과 비트 세대 이끈 전위적 문사 비트불교·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로 불교적 이상주의

소설가 윌리엄 버로스, 잭 케루악 등 현대로맨티즘문학계의 선구자들이 비트 세대를 표방하는 전위적 문사들이었다. 무정부주의 및 개인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그들은 기성세대와 기존가치를 뒤엎으려한 '미국판 문화혁명' 세대였다. 그처럼 일찍 급진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종일관 불교의 비폭력사상을 견지했다. 그들은 불교철학과 참선, 기타 동양사상을 통해 극단적 자기표현과 과격한 집단행동을 제어하는 자기 통제력을 터득했다. 이로써 그들 상당수는 당시 미국 공안당국의 요시찰대상이었음에도 물리적 조치는 피해갈 수 있었다. 그들이 꿈꾸던 불교적 이상주의는 이내 비트불교(Beatnik Buddhism)와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사적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할리우드라는 종합문화예술의 대안으로 자연스레 흘러드는 바, 그 큰 물결기 중 하나가 앨런 긴즈버그다. 어린 앨런 긴즈버그 도반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유태계 러시아인 부모 사이에 1926년 뉴저지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루이스는 유머감각과 시적 재능이 풍부한 교사며, 어머니 나오미는 당시 미국의 '대공황'에 편승해 기승을 떨치던 미국공산당의 골수분자이자 광적인 스탈린 숭배자였다. 이렇듯 외견상으로 큰 말은 없어 보이는 집안이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뭔가 몹시 꼬이고 뒤틀려 있었다. 동성애자인 아버지, 살아있는

분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이란 나라 자체도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 대공황은 자본주의 현국이라는 환상을 여지없이 짓이겨버렸다. 그 음울한 사회의 틈새마다 공산주의라는 빨간 독버섯이 솟아나고 피워가고 있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관계, 또는 무산자 계급투쟁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정치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난무했다. 그로 인한 가치관 타락과 윤리관 실종은 출지에 대국 미국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흥측한 외화내빈의 기형아로 만들어 갔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울분을 삼키는 도시 빈민, 그리고 대륙전역을 떠도는 이른바 '유랑농민'이란 떠돌이들의 마음속에는 폭발 직전의 분노가 오유히 가뭄 속의 쫓겨나듯 사냥개 영글어 갔다. 즉, 모든 미국의 민초들이 민중문학자 존 슈타인벡의 손을 빌려 소설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를 함께 써가던 시절이다. 그런 가운데 그의 어머니는 온갖 굶주림을 다하며 앨런이 컵털비아 대학 법대에 들어가도록 뒷바라지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대신해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소외된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이웃이 돼주길 기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비록 몽상적인 이상주의자였을지 모르나 심자가 울골은 여성으로서 앨런 긴즈버그의 삶과 문학 전반에 걸쳐 가나그림자를 드리운다. -계속-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Show me this temper"

"자네의 그 성질을 내게 보여주게나"

A student came before the master and asked to help him get rid of his violent temper. "Show me this temper," said the master. "It sounds very fascinating." "I haven't got it right now, so I can't show it to you.", said the student. "Well, then," said the master, "Bring it to me when you have it." "But I can't bring it just when I happen to have it," protested the student. "I'd surely lose it again before I got it to you." "In such a case," said the master, "it seems to me that this temper is not part of your true nature. If it is not part of you, it must come into you from outside. I suggest that whenever it gets into you, you beat your body with a stick until the temper can't stand it, and runs away."

한 제자가 스승에게 자신의 욕하는 성질을 버리도록 도와달라고 청했다. 이에 스승이 말했다. "그럼 자네의 그 성질을 내게 보여주게나. 참 재미있을 것 같군." 제자가 대답했다. "지금 그 성질이 안 나서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요." "그럼 성질이 날 때 내게 가져오게." 제자가 공시령 거렸다. "느닷없이 욕하고 성질이 터질 때 그걸 어찌 가져오라는 말씀이십니까? 가져오기도 전에 없어질 게 뻔한데요." "아, 그래?" 스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성질은 자네의 천성의 일부가 아닌가 보네. 그러나 아무래도 밖에서 자네 속으로 기어든 게 틀림없어. 앞으로 그 녀석이 자네 속으로 들어오거든 막 대기로 자네 몸을 마구 두들겨 패게나. 그럼 그 못된 녀석이 못 견뎌나 도망칠 게야."

번역: 성휴 스님

반기문 총장 네팔 방문 붓다 탄생성지도 참배

반기문 UN사무총장이 11월 7일 네팔을 공식 방문한다.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의 방문 후 7년 만이다. 불교신자인 반기문 사무총장과 유엔대표단은 네팔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점령지조차 프라찬다가 베푸는 야크엔테티호텔의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상조관심사를 토의할 예정이다. 이어 반 총장과 일행은 현재 야당지도자인 코이랄라와 잠시 회동한 후, 붓다의 탄생성지를 참배한다. 또한 그는 11명의 한국 원정대가 등반준비 중인 에베레스트의 경관을 항공편으로 돌아볼 예정이다.

출처: TOI

부산경호고등학교 성인반 학생모집

21세기 전문교육의 요람! 꿈이 있습니다. 부산경호고등학교로 오십시오. 미래가 보입니다. 아직도 고등학교 학력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성인반 학생 현재 접수중

-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부산경호고등학교에서 1년 3학기제로 2년만에 고등학교를 졸업시켜 드립니다.
- 중학교를 졸업한 성인남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 직장인들을 위한 주5일제 수업 / 야간반 운영
- 고등학교 중도포기 하신분은 해당학년에 편입학하여 기간 단축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정규졸업장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졸업생 전원 무시험으로 대학진학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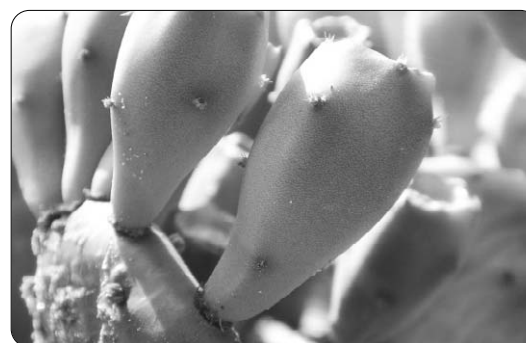
대학진학가능 | 수학생력시험에 관계없이 특별전형으로 입학

| 모집과 | 취득자격증 | 특전 |
|--------------|---|-------------------------------|
| 호텔조리과 |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 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북어조리기능사 | |
| 경호과 | 명리학, 풍수지리학, 최면학, 성형학, 사회복지학, 한문, 서예, 상담심리학, 제상학, 정성학, 주역관리학, 명상학 | 수능능력 시험에 관계없이 특별전형 무시험으로 대학입학 |
| 미대예술학 특별반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심리관련 : 개인심리치료센터개설, 영상센터 개원, 두뇌개발된 비즈니스 성공 심리강사, 최면과연원, 심리전문 수사관 지원가능 • 명리풍수관련 : 명리심리 상담연구소, 풍수지리 관련학, 브랜드 네이밍/스트 건축/조경/화체 중수 인테리어, 운세맞춤, 헤어디자인, 소비자 사주까페 • 자격증 : 최면지도사, 풍수지리사, 명리학, 성형, 작명사 | |

입학상담

부산시 금정구 무곡로 339번지
051)523-0209, 051)524-0932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은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